

올 K-리그 변화없다
6강 PO 단일리그로

프로축구연맹 실무위원회

14개 구단들의 훈련 개시로 새해를 연 프로축구 K-리그가 올 시즌에도 6강 플레이오프 단일리그를 뼈대로 운영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각 구단 사무국장이 참석하는 실무위원회를 열어 2008 K-리그 운영 틀과 세부 대회 요강을 논의한 뒤 18일 구단 사장·단장 협의체인 이사회에서 리그 운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맹은 14개 팀이 홈앤드어웨이로 정규시즌 2라운드를 돌아 모두 26경기를 치르고 작년과 같은 방식의 6강 플레이오프를 한다는 입장을 잡았다.

지난 시즌과 달리 3~6위 팀들의 경우 주중, 주말에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를 연달아 치르도록 해 체력 소모가 심해지고 상대적으로 1, 2위 팀에 유리한 일정이 잡혔다.

컵 대회도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하되 일정을 다소 늘리는 쪽으로 변화를 줬다. 경고 누적에 따른 출전 정지 징계를 강화하는 요강 변경도 논의되고 있다.

올해로 출범 26년째를 맞는 K-리그는 단일리그(1983년)→전·후기리그+ 챔피언결정전(1984년)→단일리그(1985년)→춘·추계리그+ 챔피언결정전(1986년)→단일리그(1987~1994년)→전·후기리그+ 챔피언결정전(1995~1996년)→단일리그(1997년)→단일리그+플레이오프(1998~2000년)→단일리그(2001~2003년)→전·후기리그+4강 플레이오프(2004~2006년)→단일리그+6강 플레이오프(2007년)로 운영 방식을 바꿔왔다.

작년 K-리그 MVP 따바레스
브라질 인터나시오날로 이적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미드필더 따바레스(25·사진)가 결국 포항 스틸러스를 떠나 고국 브라질의 명문 클럽 인터나시오날로 이적했다.



인터나시오날은 9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따바레스의 영입을 공식 발표하며 입단식 사진도 함께 실었다. 1999년부터 브라질 플라멩고에서 뛰던 2004년 포항으로 이적한 따바레스는 한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네 시즌 동안 113경기에 출전해 20득점 29도움을 기록했다.

유소년팀 대상 인성교육
전남드래곤즈 매주 실시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유소년클럽 선수들을 대상으로 매주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진축구클럽시스템 도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남은 지난 2003년부터 초·중·고 등급별로 U-18(광양제철고등학교)·U-15(광양제철중학교)·U-12(광양제철남초) 유소년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유소년 선수들이 지식과 품성을 갖출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 인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 영어수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 인성교육의 첫 강사로 나선 이진수 사장은 축구 선수로 성장하면서 가져야 할 매너와 인성 설계방향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프로축구 K-리그 18세 이하 클럽이 참가하는 'U-18 클럽리그' 창설을 추진해 오는 3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U-18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남(광양제철고), 성남(풍생고), 울산(현대고), 포항(포항제철공고), 부산(동래고), 서울(동북고), 수원(매탄고), 인천(대건고) 등 K-리그 8개 구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태릉선수촌 태극전사들 훈련 시작



9일 오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승리관에서 열린 '2008 국가대표선수 훈련 개시식'에서 선수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자 베이징으로” 힘찬 포효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요람 태릉선수촌이 무자런 새해 첫 기지를 쳤다.

대한체육회는 9일 오전 11시30분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승리관에서 2008년 국가대표선수 훈련개시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양궁과 배드민턴, 복싱, 펜싱, 체조, 하키, 유도, 수영, 레슬링, 역도, 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조정 등 입촌중인 14개 종목 선수와 임원 6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역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던 '환희의 순간'이 동영상으로 방영돼 선수들의 결의를 다진 뒤 김경길 대한체육회장의 식사와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의 치사에 이어 유도 왕기춘(용인대)과 역도 장미란(고양시청)의 남녀 선수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국가대표 훈련을 시작한 선수단은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08년 하계올림픽에서 메달 종합순위 '톱10' 유지를 목표로 세우고 구슬땀을 흘리게 됐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메달발원 양궁과 태권도는 물론 수영, 역도, 유도, 배드민턴, 탁구, 하키 등에서도 상위



14개 종목 선수·임원 600명 '올림픽 톱10' 결의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 “고향에 메달 선물” 다짐

입상을 노리고 있다.

올림픽 뉴스 전문웹사이트인 '어라운드 더 링스(Around the Rings)'는 최근 한국이 금 8, 은 7, 동메달 10개를 획득해 종합 9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광주·전남 출신으로는 사격 김찬미(전남여고 3)와 체조 김대은(전남도청), 양궁 이특영(광주체고 3), 육상 김덕현(조선대) 등이 태극마크를 달고 베이징 올림픽 메달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또 송마 마장마술에 최준상(광주시체육회·삼성승마단)도 오는 5월 아시아지역 출전권을 획득하기 위해 독일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찬미는 지난해 12월 12일 쿠웨이트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따내 한국에 금증성을 올릴 수 있는 기대주로 각

광받고 있다.

체조 김대은도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평행봉에서 우승, 만년 2인자의 실움을 씻으며 금빛 연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특영도 최연소 세계대회 금메달의 자긍심을 갖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빛과색을 정조준하고 있으며 육상의 김덕현은 세단뛰기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게 된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빛나는 송마 마장마술의 최준상은 오는 5월 아시아지역 올림픽 출전권 확보를 위해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정상급 기량을 갖춘 최준상이 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낸다면 메달권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올림픽 핸드볼
아예선 재경기
루마니아에서”

루마니아 연맹 유치 시사

국제핸드볼연맹(IHF)이 중동 심판의 편과 관점으로 얼룩진 베이징올림픽 핸드볼 아시아지역 예선을 다시 열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루마니아핸드볼연맹이 재경기를 개최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루마니아의 '미디어엑스' 통신에 따르면 루마니아핸드볼연맹 크리스티안 가투회장은 “우리가 올림픽 아시아 예선 재경기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가투회장은 “IHF로부터 아시아예선 재경기를 개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여자 경기는 부쿠레슈티에서, 남자 경기는 오라데아에서 각각 열 계획이며 일정은 1월28일부터 2월3일까지 일주일 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몇 팀이 참가할 지는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지만 남녀 각각 4팀에서 6팀 정도가 출전하면 딱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재경기 개최 소식이 처음으로 나왔지만 대한핸드볼협회는 IHF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정규오 핸드볼협회 국제팀장은 “이 보도 내용을 듣고 IHF에 확인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HF로부터 재경기 거부 의사를 듣고 나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철균 협회 상임부회장은 “대회 일정과 장소가 구체적이고 가투회장의 말까지 기사에 언급돼 신빙성은 있는 것 같다. 사실인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대표팀을 소집해 훈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 올림픽 축구
8강 진출 어려워”

축구지도자 54% 비관적

축구전문가들은 '박성화호'의 2008 베이징 올림픽 본선 성적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축구지도자협의회(회장 김강남)가 지난달 일선 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 지도자 3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54.3%인 210명이 8강 진출 실패로 예선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8강에 진출할 것 같다는 응답은 146명(37.7%)이었고,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8%(31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또 올 한해 축구계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대한축구협회 정몽준 회장이 올 한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 116명(30%)이 '축구계 화합과 다양한 의견 수렴 통로 마련'이라고 답했고, 새해 축구협회가 축구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도 42%에 달하는 163명이 '축구계 갈등 해소 및 화합'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정몽준 회장 재임 15년을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260명(67.2%)이 2002년 한일월드컵 유치와 월드컵 4강 신화를 업적으로 꼽았다. 축구계에 기여하지 못한 점으로는 120명(31%)이 국가대표팀 중심의 이벤트 행사에 치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차기 회장으로 적합한 인물에 대해선 축구인이어야 한다는 답변이 79.3%(309명)를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국가대표 강민혁 0.01초 싸움

9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 레인보우 코스에서 열린 서울컵 국제 알파인 스키대회 대회전 경기에서 국가대표 강민혁이 기문을 통과하며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별리 회원권
골프·연도 회원권
골프 3,450 / 연도 1,700
남량주 4,400 / 골드 1,900
승주 8,200 / 도포양 2,100
문의: 062-351-0095